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24.(화) 17:00 이후(11. 25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11. 24.(화)

새로운 도심융합특구 선도모델…
전주·창원 도심에 혁신거점 조성 추진

【관련 국정과제】 49.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
- 전주는 'AI 신뢰성 검·인증', 창원은 '방위·원자력' 특화 혁신거점으로
- 산업·주거·문화가 어우러진 혁신공간 조성으로 5극 3특 균형성장 뒷받침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홍지선)는 **인구 50만 이상 대도시**에 기업과 청년 인재가 함께 모이는 혁신공간 조성을 위해 **'대도시 도심융합특구'**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그 후보지로 **전북 전주시와 경남 창원시를 선정**했다.

○ 이번 선정은 5개 광역시 중심의 **도심융합특구*를 대도시로 넓히는 첫 걸음**으로 **'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'을 뒷받침**하는 의미가 있다.

*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형 혁신공간

□ 국토교통부는 '20~'22년 **대구·광주·대전·부산·울산**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, '24년 11월 **도심융합특구로 지정**하여 현재 실시계획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, '25년 12월 「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('26~'35)」에 **'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구' 유형을 신설**하였다. 이번 선정은 후보지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**국정과제와 연두 업무계획을 이행**한 결과이다.

□ 후보지 선정 절차는 올해 6월 **가이드라인 배포와 전문기관 사전 컨설팅**, 8월 **신청서 접수**를 거쳐, 9~11월 전문가 평가단이 **서면검토,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**를 실시했다. 그 결과, **전주·창원**이 특구로서의 성장성, 산업 연계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**균형 있게 갖춘 것으로 평가**됐다.

① 전북 전주 : 연구·실증·생산을 잇는 AI 신뢰성 검·인증 거점

○ **전주 후보지**(특구개발사업구역 약 46만㎡, 추정 사업비 4,226억 원)는 KTX 전주역과 새만금-전주 연결도로 등 **광역교통 결절점**에 위치하며, 평가단은 **3특 지역으로서 균형성장 거점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높다**고 평가했다.

○ **로봇·에너지·바이오** 등을 핵심 산업으로 **전북대**(연구) - **완주**(실증) - **새만금**(생산)을 연결하는 **AI 신뢰성 검·인증*** **거점**으로 육성한다. 구역 전체를 **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**해 연구개발센터·지식산업센터와 주거·상업시설을 갖출 계획이다. 전주역사 전면개선(국가철도공단),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한국토지주택공사)과 같은 연계사업도 추진한다.

* AI 신뢰성 검·인증 : AI 제품 상용화 전 안전성·신뢰성을 검증하고, 인증을 지원하는 기능

○ **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**하여 재원조달과 사업시행을 총괄한다. **전북도는 원활한 자금 확보**를 위해 필요시 공사채 발행(전북개발공사), 추가 출자(전북도)를 검토할 계획으로 **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.**

② 경남 창원 : 동남권 첨단제조산업 역량을 집중하는 혁신거점

○ **창원 후보지**는 **KTX 창원중앙역과 국립창원대 일원**(특구개발사업구역 약 84만㎡, 추정 사업비 4,745억 원)으로, **방위·원자력 산업기반**(창원국가산단·SMR[2] 국가연구소)**과 연구개발 역량**(대학·기업부설연구소·국책연구기관)을 결합해 **동남권 연구·실증·사업화 거점**을 조성할 계획이다.

○ '25년 2월 국가·지역전략사업*으로 선정된 「**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**」를 특구 내에 조성해, **방위·원자력 산업**과 관련한 ▲기업 연구개발 공간, ▲공동장비·기술지원센터, ▲도심형 실증공간 등을 갖추고,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여 **창원중앙역 입체복합개발**을 추진한다.

*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적용 없이, 환경평가 1·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시 해제 가능

○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**창원시는 51% 이상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(SPC)을 설립**할 계획이며, 향후 민간의 참여도 검토할 예정이다.

※ 현재 전주·창원 후보지는 기본구상 단계이므로, 기본·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변경 가능

□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**해당 지방정부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(안)을 마련**하면,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**도심융합특구로 지정**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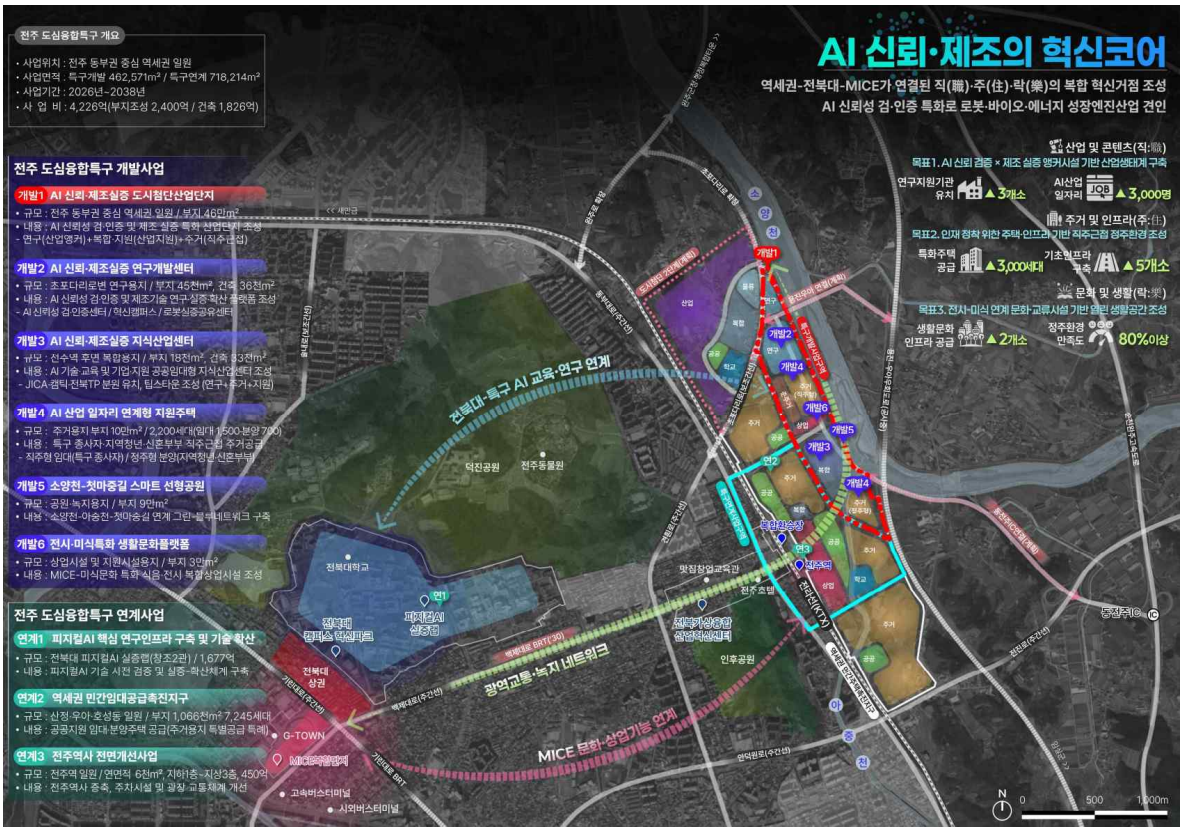
□ **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**은 "**후보지 선정**은 새로운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선도모델이 **지역의 성장엔진이 되는 출발점**"이라며, "전주와 창원이 **경쟁력 있는 기업과 유능한 청년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공간**이 되도록 **지방정부와 함께 후속 준비**를 잘 추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미정 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정진헌 (044-201-4731)
			주무관	김지원 (044-201-364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FOR TOMORROW

참 고 | **대도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종합구상(안)**

□ 전북 전주시



□ 경남 창원시

